

SKC-SK케미칼 주가 일제히 약세!

SK글로벌 회생 위한 출자전환방안 확정 ... SK그룹 주 명암 엇갈려

SK가 SK글로벌 회생을 위한 출자전환안을 확정하자 SK그룹주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 종목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원 부담을 져야하는 종목들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6월16일 거래소 시장에서 SK글로벌과 SK증권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가격 제한 폭까지 오른 뒤 오후 1시40분 기준으로 변함없는 강세를 유지했다.

반면, SK는 5.9%, SK텔레콤은 2.7%, SK케미칼 5.4%, SKC는 1.4% 등의 하락률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말 최태원 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대부분 올랐던 그룹 주들이 SK가 이사회를 통해 SK글로벌에 대해 8500억원 규모의 출자안을 확정된 뒤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SK의 결정은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반영돼 개별 주가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적극적인 매매를 권하지는 않고 있다.

SK 이사회 결정 이후 노동조합과 외국계 대주주 등의 지원 저지를 위한 소송 등으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LG 투자증권 이을수 연구위원은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출자전환이 확정됐으나 이를 미리 반영해 회사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며 “할인율 25%를 적용해 산정한 1만500원도 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후 SK의 독립경영 기대심으로 강세를 보인 주가는 이사회 결정으로 꺾일 것”이라며 “단기적인 매매보다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원증권도 최태원 회장의 징역형 선고와 SK 이사회에서의 SK글로벌 정상화안 결의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은 시장에 이미 반영됐으며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호전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SKC는 SK글로벌 출자전환 결의로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압박이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고 역시 매수의견과 목표가 9500원을 유지했다.

SK에 대해서는 노조의 파업, 이사진 배임혐의 고발 등으로 SK글로벌 관련 의사결정 효력발생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고 소버린자산운용 등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점을 고려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박대용 수석연구원은 SK는 출자전환은 물론 채권단이 요구한 EBITDA(법인세와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이전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지원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 주 급등으로 인한 조정일 뿐 SK글로벌 회생 추진과 관련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mical Journal 2003/06/17>